

## 1. C로 삽질하기

요즘 시대에 왜 C 강좌냐고? 내가 할 줄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C와 C++이고, 그중에 C를 좀더 잘한다 생각해서 글 한번 써보는 거다. 사실 나는 Java나 C# 같은건 해본적도 없고,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편하다고들 한다. 편하게 프로그래밍 하고싶다면 C 말고 그런것들을 공부해라. 그래도 난 C가 더 좋고, 그걸로 먹고살고 있다.

사실은 이쯤으로 하고, C에 대해 얘기 하기전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이란 짧은 수필하나나 장편소설을 쓰는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 안에는 문법도 있고 의미도 있고 나름 철학도 있다. 책을 보면 문장 하나에 감동하는 것과 같이 코드를 보면 한줄 한줄에 감탄할 수 있다는 거다. 결론은 프로그래밍이란 책을 쓰는 것과 같고, 그 결과물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C란 뭐냐?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 관심도 없고 안다고 프로그램 잘짜는 것도 아니다. 혹시라도 궁금하면 구글링이라도 해보고, 알게되면 나도 좀 알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C에 대해 알고자 이 글을 본다면 대충이라도 알고 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라면 좀 알고 와라. 시중에 좋은 책들도 많고, 검색해보면 좋은 C강좌들도 많다. 그럼 왜 이 글을 봐야하냐고? 안봐도 된다. 보고싶음 보고 말고싶음 마라. 앞으로 적어나갈 글들은 기본적인 것은 많은 책과 강좌에 있는 것은 설명하겠지만, 그보다는 그곳에 없어 삽질하면서 알아낸 것들을 알려주고자 함이다.

이후의 글에 대한 목차는 모르겠다. 기분 나면 쓰고 아님 말거다. 그것도 이글을 보며 C로 삽질하면서 겪게될 또하나의 삽질이 될지도 모른다.